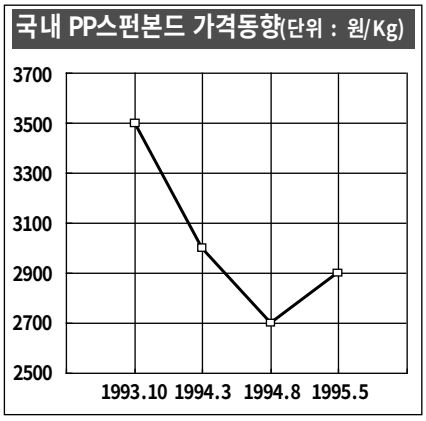
PP스펀본드시장 "악화"

공급과잉 · 원료가 맞물려 … 제품 차별화 · 고급화해야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아온 국내 PP스펀본드시장이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PP스펀본드시장은 그동안 일정한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최근 원료가 급등으로 사실상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4년 하반기부터 50% 이상의 원료가 인상이 단행됐음에도 불구하고 PP스펀본드는 공급과잉과 국내 기업들의 밀어내기식 가격경쟁으로 10% 정도의 가격인상에 그쳐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PP스펀본드 생산현황(1994)

구 분	생산량	점유율
제일합섬	7,000	29.2
유한킴벌리	6,000	25.0
코오롱	4,500	18.8
삼양사	3,500	14.6
한일합섬	3,000	12.4
합 계	24,000	100.0

국내 PP스펀본드시장은 94년 삼양사가 3500톤 규모로 신규 진출하고, 제일합섬이 4700톤을 증설함에 따라 전체 판매량의 2배에 달하는 공급과잉을 보여왔다.
이에따라 92년 Kg당 3500원이던 것이 94년초 3000원으로 떨어졌으며, 94년 중반기 2700원으로 하락, 일부기업에서는 2500원 이하의 가격에 밀어내기식 판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원료레진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돼 10% 정도의 가격인상을 단행, 95년5월 현재 2900 3000원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일부품목의 경우 여전히 2500원 내외의 저가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PP스펀본드 생산능력은 제일합섬 7000톤을 비롯해 유한킴벌리 6000톤, 삼양사 3500톤, 코오롱 4500톤으로 총 2만1000톤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94년 PET스펀본드 3000톤 설비를 갖춘 한일합섬이 농업용 PP스펀본드를 소량 병행 생산하고 있다.
이에반해 국내기업들의 판매량은 내수 6500톤, 수출 2500톤 등 총 9000여톤에 불과해 2배이상의 공급과잉 상태에 있다.
PP스펀본드시장이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내수시장이 성숙단계에 이르렀고 용도개발이 여의치 않아 뚜렷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수출에 있어서도 공급과잉의 해소차원에서 저가로 판매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장에 한정돼 수출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내 PP스펀본드 생산기업들은 제품의 차별화와 용도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제품의 고급화와 물성향상을 위한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5/6/12>